

2022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및 주의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수강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하게 COVID19가 장기간 유행되어 우리 학과에서 2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3+1제도를 이번 학기에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개설되는 2학년 2학기 과목을 국내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이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중국개설과목 중 국내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향후 중국파견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개설과목을 국내에서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복수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학년 학생 중 차후라도 중국파견을 반드시 다녀오겠다는 학생은 이들 과목 수강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COVID19가 언제 해결이 되어 안정적으로 파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중국개설과목을 수강 내지 보류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학과에서는 다음 학기라도 파견이 가능할 경우 대학 본부 측과 협의하여 파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 이번 학기 중국개설과목을 국내에서 수강한 한 학생은 한학기 파견이 가능하고, 중국개설과목을 국내에서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두학기 파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수강기준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학년 학생은 국내에서 개설되는 학년에 맞는 과목을 중심으로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 중 1학년이면서 고학년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학년 과목 수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년에 중국파견 될 경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2학년 학생은 이번 학기에 중국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국내에서 개설되는 중국상관습론1(교직), 중국어강독1(교직), 중국어작문1(교직), 중국어학개론(교직), 한문강독(교직)을 중심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국파견을 반드시 다녀오겠다는 학생은 수강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학기 국내에서 수강하면 중국개설과목 이기 때문에 중복수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2학년 학생은 고학년 과목을 우선 수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다음 학기에 COVID19가 완전히 해결되고 본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3/4학년 학생은 해당 학년에 개설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졸업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4학년 학생은 마지막 학기라 어렵지만, 극소수의 3학년 학생 중 2학년 2학기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한 학기에 한해 중국파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파견하는 문제는 대학 본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파견은 1년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과에서는 가능한 한 한 학기라도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졸업을 앞둔 학생 중 아직 HSK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HSK 자격 대체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시어 졸업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강 신청을 하시되, 의문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학과장이나 해당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한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중국어중국통상학과 학과장